

해외의 데이터 관리체계 사례 및 시사점

Data Management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통계 자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단순한 기초통계의 분석에서 다양한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 등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으로 변화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IT 환경의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통계자료의 연구 및 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근거에 기반한 심층 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와 보건복지통계 자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 및 공공기관별로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인통계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할수록 적절한 데이터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연구자의 컴퓨터 안에 존재하거나 아카이브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목표는 Amazon에서 책을 찾거나 Google에서 정보를 검색하듯 가능한 쉽게 데이터를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학적 연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과학은 반복적인 분석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것은 과학적 연구의 기초적인 요건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결과만이 진정한 과학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연구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연구결과는 신문의 오피니언 리뷰 섹션에 게재된 개인적인 의견 결과로 간주될 뿐이다. 기초적 요건으로서 반복은 대부분의 연구 조직이나 예산을 제공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행동 강령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적 분석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동료나 과학적 결과에 관심을 가진 누구에게나 접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데이터가 공공재라는 사

실을 의미한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한된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데이터 생산이 국가 예산에 기초할 경우, 그리고 법에 의해 가능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할 경우 필요하다. 최초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더 많은 분석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해야 하고,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유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은 새로운 혁신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 연계를 활용하여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으로 두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없이도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생산한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더욱 더 많이 인용될 수 있으며 전문성 측면에서 더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생산자로서 인용되는 것은 데이터에 근거한 학술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연구 커뮤니티에서의 명성은 생산한 데이터가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은 분석이 가능할 경우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은 연구자 간에 경쟁을 촉진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 분석일수록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식은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가 더 나은 분석결과에 의존할 수 있다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나은 정책결정은 더욱 더 번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대한 시각은 해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EU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대한 노후를 주변 국가들에게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있는 스위스, 영국, 스웨덴의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EU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데이터 관리 정책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¹⁾.

2. SERSCIDA 의 주요 내용

SERSCIDA(Support for Establishment of National/Regional Social Sciences Data Archives)는 CESSDA(Council of European

1) 이 글은 [보건복지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으로 방문한 스웨덴(The Service)에서 데이터 관리 방안 및 데이터 아카이브에 관해 전문가 면담내용 및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Social Sciences Data Archives) 회원 국가인 스위스, 영국, 스웨덴과 발칸반도 서쪽에 위치한 WBC(Western Balkan Countries)에 해당하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에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동유럽 3개국의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발칸 3개국은 지금까지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대부분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기관이나 개별 연구자들이 소유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발칸 3국에서 냉전시대 이후 사회과학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회 변화, 역사적 유산, 공산주의 이후 갈등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유럽 학술연구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러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후속 연구를 위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발칸 3국에는 데이터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만한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은 유럽지역 표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조사데이터가 손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연구를 통해 생산된 사회과학 데이터를 관리 및 보존하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CESSDA 회원기관의 경우, 유럽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영역에서 3만명 이상의 연구자에게 약 2만 5천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RSCIDA 프로젝트는 CESSDA 회원국의 연구기관들 중에 모범적인 구축 및 운영 사례를 활용하여 유럽 내 다른 지역 국가들이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회과학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지식의 교환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SERSCIDA 프로젝트는 EU의 Seventh Framework Program(FP7)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총 7개국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SERSCIDA 참여국가의 컨설팅 국가로는 스위스(FORS Swiss Foundation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s), 영국(University of Essex, United Kingdom Data Archives), 스웨덴(University of Gothenburg, Swedish National Data Service), 슬로베니아(University of Ljubljana, Social Science Data Archive)이며,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상 국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HRC Sarajevo University of Sarajevo, Human Rights Centre), 세르비아(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 Belgrade), 크로아티아(University of Zagreb, Facult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이다.

SERSCIDA 프로젝트는 참여국가 간에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 생산된 조사데이터와 다양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ERSCIDA의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에 참여한 발칸 3개국에서 연구

를 통해 수집된 조사데이터의 관리 및 보존, 공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발칸 3개국의 사회과학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잠재적 역량 및 인프라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발칸 3개국과 EU - CESSDA 회원국 간 사회과학 지식의 교류와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넷째, 발칸 3개국의 정책 결정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Open Access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1.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 사항
조직 및 내부 구조 정의	데이터 서비스팀 구축 수집 데이터의 범위 설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지속가능한 재정계획과 예산 확보 데이터 서비스 관련 관리지침 개발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 계획과 그에 따른 적절한 데이터 제공 메커니즘 개발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 설정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 사이에 공식·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데이터 서비스팀의 조직도를 포함한 조직내부 구조 정의 업무 공간 및 시설 설정 데이터 서비스 기관의 브랜드와 로고 개발 웹사이트 구축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추진
인력 구성 및 관리	필요한 역할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수 설정 업무영역을 기술하고 인력 채용 준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습득 능력 향상 지원 업무수행 지침 작성
기술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서버, 컴퓨터, 보안, 백업 시스템 설정 SPSS, STATA 등과 같은 통계분석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축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툴 선택 네트워크 인프라와 통신기반 설정
정책·품질관리 과정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관리 및 권한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데이터 획득을 위한 계획 설정 데이터 백업과 보안에 대한 정책과 계획 수립 정책과 툴의 표준화작업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기본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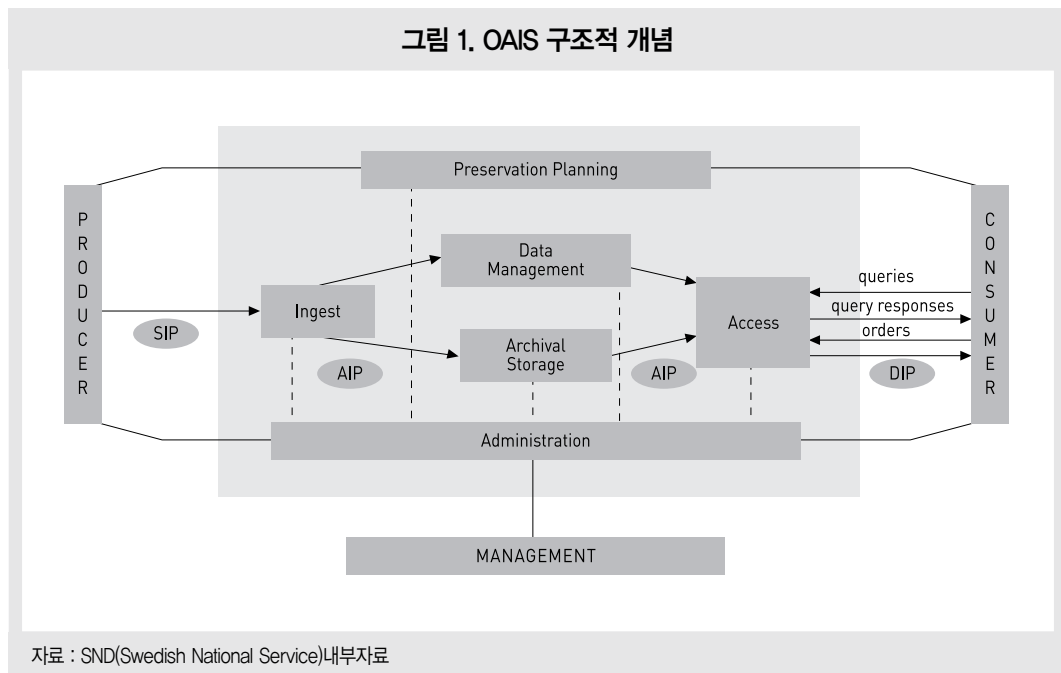
자료 : 위 자료는 오미애(2014), 스위스 사회과학 데이터포털(DARIS)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4년 12월호의 <표 1> DARIS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구성요소별 세부 항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SERSCIDA 프로젝트의 컨설팅 국가로 스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체계를 공유하고 있음.

SERSCIDA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검토된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다양한 고려사항들은 향후 보건의복지 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시 중요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ERSCIDA 프로젝트에서 참여국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총 4가지 영역의 30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SERSCIDA의 데이터 아카이브 프로토타입은 OAIS System 기반 관리체계이다. OAIS는 사회과학 분야 데이터의 관리 및 보존, 활용을 위한 참조모형(Reference Model for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으로, SERSCIDA 참여국가인 세르비아(SR-SSDC), 크로아티아(CRO-DAS),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USDAS)의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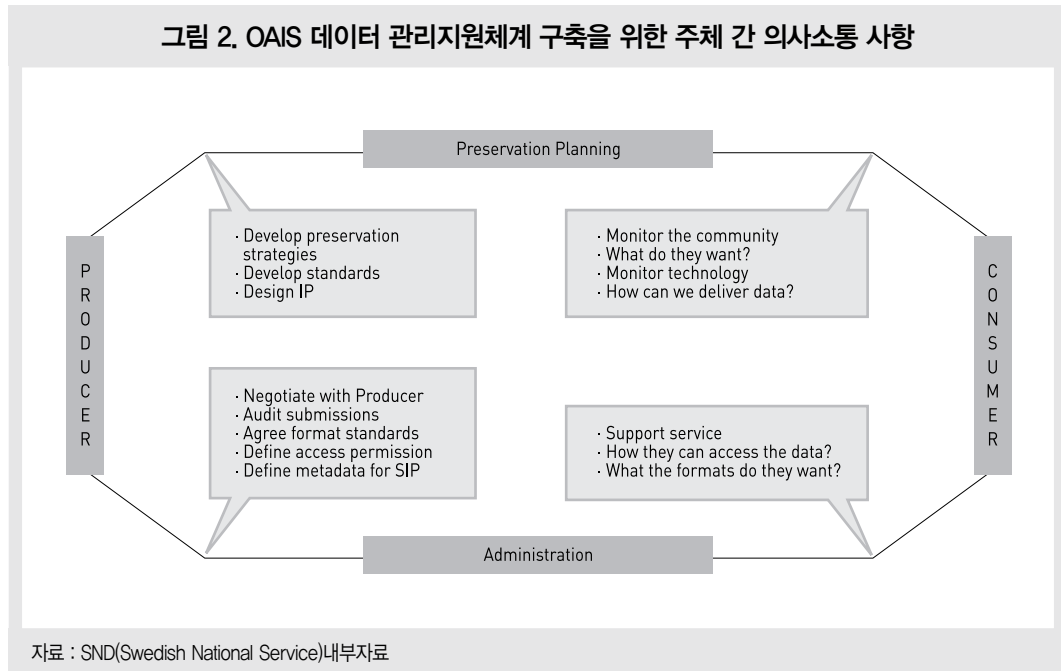
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데 기초로 활용되었다. OAIS 기본 구조에서 주요 단계는 Ingest(데이터 수집), Archival storage(데이터 저장)와 Data management(데이터 관리), Access(데이터 접근) 순서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Administration(데이터 행정)/ Preserving planning(데이터 보존계획)의 업무의 지원이 더해진다.

정보 패키지 구성으로, 데이터 정보가 관리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구조적 흐름을 살펴보면, 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SIP)에서는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를 아카이브에 전달하는 단계, Archival Information Package(AIP)는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저장 및 보존하는 단계, 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DIP)는 아카



이브에서 데이터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으로, SERSCIDA 프로젝트에서는 데이

터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간 의사소통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해외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의 데이터 관리정책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는 공공재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7년 OECD가 발표한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기본원칙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의 연구예산 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공공재산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공유와 활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OECD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미국과 영국의 연구예산 지원기관에서는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공유 및 공개를 권고하고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연구과제 신청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를 관리를 연구 수행과정의 일부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영국 RCUK(Research Council UK)에서는 OECD가 제시한 기본원칙과 별도로 “데이터 관리정책에 대한 공동 원칙

표 2. OECD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Openness) • 유연성(Flexibility) • 투명성(Transparency) • 법적 순응(Legal conformity) • 지적재산권 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공식적 책임(Formal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Professionalism) • 상호 운영성(Interoperability) • 품질(Quality) • 보안(Security) • 효율성(Efficiency) • 책임성(Accountabi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

자료 : OECD(2007),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 자료 재구성

(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을 제시하고 있다. RCUK는 영국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조직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데이터 정책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기반으로 기관 간에 데이터 관리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나가며

SERSCIDA의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내용과 주요 국가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예산 등 공적인 재원으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가치 있고 장기간 관리 및 보존해야 할 공공재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 및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연구데이터를 포함하여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

든 결과물에 대한 관리 및 공유를 통해서, 연구 성과의 홍보 및 다양한 연구수행을 장려하여야 하고 새로운 연구영역과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중복 연구의 최소화 및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관리계획 측면으로는, 최근 들어 연구예산 지원기관이 연구예산을 신청하는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연구계획서와 더불어 데이터 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예산 지원기관에서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데이터관리와 공유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포괄하는 데이터 관리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관리를 연구과정의 일부이면서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계획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연구예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고 학습

표 3. 영국 RCUK(Research Council UK)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기본원칙

- (1) 국가의 연구예산에 기초한 연구 데이터는 공익과 대중의 관심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이며, 데이터는 최소한 제약조건 하에서 적시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함
- (2) 제도적이거나 연구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 관리정책 및 계획은 적절한 표준안이나 연구 커뮤니티의 모범적인 사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데이터는 미래의 연구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보존되고 접근 가능해야 함
- (3) 연구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이해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록화(documentation)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함
- (4) 데이터 공개에 제한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윤리적, 상업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하고, 부적절한 데이터 공개 및 제공으로 인해 연구 수행과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함
- (5) 연구진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투입한 노력을 적절히 인정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연구 분야 및 학술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6)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존하고 주요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지적인 기여를 인정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7)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해서는 공적인 재원이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며, 예산 제약 하에서 연구 성과와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자료 : RCUK(Research Council UK; 2015), Common Principles on Data Policy. 자료 재구성

연구 커뮤니티에서 이를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관리 및 보존 측면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인프라와 표준 지침이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 수행은 데이터 기록화, 데이터 접근 및 공유, 데이터 보존, 데이터 관리지원 및 서비스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개 및 제공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조건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

하여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예산으로 생산한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자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이는 연구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를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유 허용이 연구데이터 공유라는 연구자들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데이터 공개 및 공유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비밀유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이전에 모든 식별정보를 보이지 않게 편집하고 개인 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정

부 연구예산 지원을 받아 생산된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관련되며, 특히 영국의 경우 데이터 공유의 법적 기반으로서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언급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일반 국민은 누구나 공공성을 지닌 데이터를 정부 및 대학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국가안보나 상업적 이익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자들에게는 데이터 관리 및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생산부터 관리 및 제공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관리·지원 내용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SERSCIDA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연구예산 지원기관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3.0과 더불어 최근 제시된 통계청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예산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제공 및 활용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승인 통계 이외에도 각종 연구로부터 생산되는 미승인통계 등 연구기반 조사데이터 관리에 있어 책임성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다. ■